



Exodus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사항』

- 제20회(1978년) 사법시험 차석합격
- 가천길재단 법률고문
- 법무연수원장 (고등검사장 승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감찰부장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승진)
- 서울중앙지검 서부지청장
-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 태 현

一. 처음에

司法試驗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둡고 길고 지리한 터널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곳을 빨리 脫出하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단 한번의 멈춤도 없이 계속하여 前進하려고 노력하였다. 발을 들여 놓은 이상 되돌아 나올 수는 없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길지 않은 시간이나마 渾身의 힘을 쏟았다.

처음 司法試驗에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 할 때는 나도 한번 合格記를 써 보았으면 하고 꿈을 꾸었으나 막상 쓰려니까 두려워진다. 老壯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파란만장한 이야기도 없고 특출한 공부방법도 가지지 못했던 나로서는 자신있게 쓸만한 것이 없다. 다만 공부하다가 지친 머리를 휴식하는 동안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읽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二. 考試以前

1955年大邱에서 태어나 慶北高를 졸업하고 74年 서울大 社會系列에 입학하였다(社會系列안에 法學科가 있었음).

내가 司法試驗을 지향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考試공부를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신 아버님의 영향이 많은 작용을 하였고 나 자신도 判·檢事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新入生시절은 浪漫·情熱등으로 점철된 아름다운 시절이듯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보는 서울에서 父母님의 간섭없이 하숙생활을 하다보니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自由奔放하였다. Meeting에도 부지런히 나갔고(한번도 소위 견수를 올리지 못했다)hard rock 音樂에 심취되어 베토벤 보다 Led Zeppelin이나 Eric Clapton을 훨씬 좋아했으며, 니체·칸트의 思想도 이야기하는 체 해보았고 신입생 환영회때 냉면그릇에 가득 담긴 막걸리를 15초만에 마신 것을 계기로 술도 많이 마시는 등남들이 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해보았다. 교양과정부 체육대회때는 400m 릴레이에서 金 메달도 따보았다.

이때까지도 막연히 考試에 合格해야 한다는 當爲命題만을 가지고 있었지 司法試驗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 司法試驗보다 급한 것이 法學科로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學點을 따는 것이었다.

2학기는 데모 때문에 한달을 休講하여 講義를 하는등 마는등하며,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내가 合格記에서 읽은 바로는 1학년 겨울방학때쯤 되어서는 民法總則이나 刑法總論을 읽는 등 슬슬 考試準備를 하는 것이 거의 公式化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民法總則은커녕 가지고 있던 法書라고는 法學概論이 고작이었다. 아직 學科도 정해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겨울 방학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맞이한 겨울 방학을 英語會話學院에 나가면서 보내기로 했다. 여기서 E大生 하나를 꼬셔 데이트를 즐

기며 겨울방학을 보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그럭저럭 보내다가 다행히도 法學科에 진학할 수 있었고 9月에는 집도 서울로 이사와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司試合格을 위한 회색빛 生活이 시작되었다.

三. 受驗準備時節

1. 第18回 司法試驗

2학년 여름방학은 學科配定과 俗離山, 萬里浦여행 등으로 한달을 보내고 1學期가 시작되어 정식으로 法講義가 시작되었다. 나의 進路를 決定해야 했다.

다른 분들 같으면 考試에 뜻을 두게까지는 고민과 갈등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나의 경우는 별다른 갈등없이 自然스럽게 司法試驗에 뜻을 둘 수 있었다. 아마 이것은 잠재의식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목표가 설정된 이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計劃과 도구가 필요하였다. 될 수 있는 한 短期間內에 합격하기로 하고 受驗書는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많이 보는 冊들로 선택했다. 그리고 73년이후의 考試界를 사모았다. 이것들을 책꽂이에 장식하고 보니 제법 그럴 듯했다. 어차피 공부해야 할 바에는 生活을 單純化하여 판데에는 될 수 있는 한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2學期에 열심히 해서 第18回 司試 1次에 合格해 두라는 金哲洙教授님의 권유에 따라 우선 第18回 1次合格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이때까지는 自稱 동양 최대의 규모라고 자랑하는 관악캠퍼스의 圖書館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몰랐다. 친구따라 우연히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시설이 썩 훌륭한 것 같아 여기사 공부하기로 작정했다. 이때부터 合格時까지 圖書館生活이 시작되었다. 무려 3년 가까이를 비가오나 눈이오나 圖書館에 들락날락하였다. 나의 合格의 産室이었다. 12월 중순 期末試驗이 끝날 때까지는 憲·民·刑法의 基本三法을 완전히 理解해 놓고 그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머지 5科目을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三法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完全히 理解하는 것은 무리였으나 별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고 특히 憲法의 基本權分野는 재미도 있었다. 期末試驗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1次 準備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내가 중요한 錯覺을 犯하고 있었을 줄이야. 1次 試驗科目으로서의 民法은 民法總則만을 하면 되는 줄 알고 民總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부랴부랴 物權·債權法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읽어 놓았다. 民法은 客官式問題集도 다 못읽고 試驗에 응시하게 되었다. 때마침 기운은 영하 17도로 급강하. 민법은 사상유례없이 어렵게

출제되었으니 합격은 바라볼 수도 없었다. 첫시간인 憲民刑法을 보고 나서는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과는 당연히不合格. 전혀 슬프지 않았다. 現代는 情報의 時代인데 受驗情報의 입수에 많이 노력하였다. 計劃을 修正하여 第19回 1次 合格 第20回 2次 合格(가능하면 19回 2次 合格)으로 결정하였다.

2. 第19回 司法試驗

3학년이 되자 物權法·債權法·商法の 강의 등 本格的으로 法講義가 시작되었다. 心機一轉하여 새로이 시작하는 기분으로 講義를 中心으로 공부하기로 하였다. 講義가 있는 科目은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여 교수님의 講義만이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나머지 民訴法이나 刑訴法 等은 法律學法典을 옆에 펴놓고 참조해 가면서 혼자서 공부했다. 그러나 중점은 憲·民·刑·三法에 있었으므로 訴訟法은 뜬 구름 잡는 기분이었다. 도무지 理解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슬럼프없이 1학기를 전국 일주 修學旅行을 다녀오는 등 대체로 目標를 達成한 채 끝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修學旅行등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다. 平生의 추억이 될뿐 아니라 공부에 시달린 心身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며칠 다녀온다고 해서 공부에 그렇게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山寺로 공부하러 가는 친구, 봉사활동 떠나는 친구, 계속 圖書館에 남는 친구, 아예 놀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圖書館에 계속나가는 것이 조금은 싫증이 나서 行試공부하는 친구 2명과 함께 모의법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날씨도 덥고 放送通信大學講義 때문에 시끄럽고 해서 공부는 거의 못하고 3명이 野球만 실컷하다가 여름방학을 다보냈다. 친구 2명중 야구에 좀더 열성을 보이던 친구 1명이 9월에 거행된 行試 1次에 떨어졌다. 조금 미안했다. 사실 여름에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超人的인 노력없이 힘들다. 現狀維持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2學期에는 난공불락이던 訴訟法の 講義도 시작되어 考試준비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섰다. 七法에 대한 理解가 어느 정도되어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基礎는 대체로 마스터한 기분이었다. 10月末 19回 試驗公告에서는 나와 같이 공부부족한 受驗生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1,2次 試驗 모두 예년보다 2個月가량 늦춰진다는 것이었다. 2개월 만큼 더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썬. 이렇게 되자 이때까지 運이 닿는다면 第19回 2次合格까지도 바라보았던 단순한 希望이 강렬한 慾望으로 바뀌어져 나의 힘으로 합격해 보자는 意志가 솟아 올랐다. 그러나 이때까지 8개월여를 2次는 별로 기

대하지 않고 느긋하게 공부해 오던 자세를 意志하나 만으로 고치기에는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한 밤10시까지 圖書館에 남아 있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생 大學入試關係로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등 집안일이 자꾸 생겨 계획에 많은 차질이 왔다.

19回 2次 合格은 나의 四柱八字에는 없나보다라고 생각하며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였다. 오직 1次的 完全한 合格에만 전념하였다. 작년에는 별로 보지 않았던 客官式問題集도 2~3번씩 보는 등 완벽을 기하여 쉽게 合格할 수 있었다. 1次 끝나고 나서 2次 試驗까지는 약35일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 짧은 시간에 8科目的 基本書를 다 볼 수 없어서 각 科目마다 出題可能性이 높은 問題만을 뽑아 공부하고 試驗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國史는 여태껏 전혀 공부하지 않다가 韓國史要論을 단 한번밖에 읽지 못하였다. 이러한 狀況이었으니 그 결과는 明若觀火했다. 특히 이번에는 民法의 case문제, 行政法의 已出問題·民訴法の 準 case문제 등 受驗生들을 당혹케하였으니 몇문제만 뽑아보고 간 나로서는 도저히 力不足이었다. 중도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이 대견스러웠다. 점수는 國史 科落(36·66)을 포함하여 平均 52·21이었다(cut line 54·50).

과히 실망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20회는 해볼만 하다는 자신을 얻었다. 2次試驗에 처음 응시해 본 나로서는 다른 受驗生들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거의 必死의이었다. 同期들이 12명이나 合格하여 나를 놀라게 하였다. 친구들과 위로주를 한잔하고 20회에는 必히 合格할 것을 다짐했다.

3. 第20回 司法試驗

5월말에 2次發表가 있고나서 한달 가량 더 휴식하고 7月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였다. 1년동안 공부에 시달리던 몸이라 心身을 휴식시키려고 大祝祭에도 참석해 보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다 데이트도 즐기고 후배들과 野球試合도 하는 등 책 한 페이지 보지 않고 지내다 보니 7月初에 시작하려던 계획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期末試驗 準備·軍入營身體檢査 등을 마치고 보니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갔다. 이왕 늦은 바에 여행이나 갖다와서 8月初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5일간 설악산 여행을 다녀왔다. 비선대 바위에 무릎 꿇고 앉아 이번에는 꼭 合格하겠노라고 굳게 굳게 맹세했다. 旅行을 마치고 圖書館에 나가보니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合格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다. 8월 한달은 그동안 굳어진 머

리를 풀기 위해서 3과목을 한번 通讀하는데 보냈다. 20회 1次 부담이 없으므로 마음놓고 2次 準備를 할 수 있었다. 基礎는 완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살을 붙이기로 했다. 다음해 4월까지를 前後半으로 나누어 前半期는 이때까지 死藏하고 있던 考試界의 논문이나 내용이 충실한 豫想問題 등을 오려내어 基本書나 問題集에 끼워넣어 폭넓게 공부하고 後半期는 이렇게 하여 單券으로 정리된 것을 暗記하는 방향으로 계획세웠다.

民訴法·刑訴法·國史등은 問題集에 다 모든 것을 압축시켰다. 國史는 이것저것다 검토해 보았으나 韓國史要論만큼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冊도 역시 많이 부족하므로 韓國史의 再照明이나 韓國 近代史의 再照明등으로 補充할 필요가 있다. 國史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19번째 科落을 당했던 과목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다.

나는 8과목을 모두 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3개 정도의 得點科目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行政法·商法·民法을 다른 科目에 비해서 많이 공부했다. 行政法은 徐元宇 教授님의 강의를 中心으로 論文을 참조해가며 준비했고 民法은 郭 教授님의 教科書를 中心으로 基本的인 것을 이해하려고 힘썼으며 商法은 教科書에 商法要論을 가미하여 가면서 공부했다(특히 商法의 第1問은 商法要論에 있는 문제로서 잘 쓸 수 있었다). 기타 科目의 問題集은 異同을 묻거나 教科書에 없는 문제를 보는 정도로 그쳤다. 答案을 작성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문제집에 나와 있는 대로의 構成은 피하려고 노력했다.

순조롭게 이렇게 공부해 나갔다. 내가 보기에 實力이 많이 붙은 것 같았다.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정복해 나가고 책의 부피가 늘어갈 때마다 나의 가슴은 뿌듯하였다. 공부가 재미있었다. 슬럼프가 올 많하면 공부를 잠시 쉬고 원기를 회복한 후 다시 시작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000번씩 줄넘기를 하였다. 그러나 大學院 進學問題로 약 보름간을 허비하고 보니 계획이 조금 미달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채찍질을 가하였다. 마지막 渾身의 힘을 쏟아 넣기로 했다. 권투선수가 라스트 라운드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듯이 공부시간을 하루 10시간이상으로 잡고 매일 매일 체크해 나갔다. 이때까지 일요일에 3시간 정도씩 보던 TV도 MBC권투만 보기로 했다.

3月 20일까지 대충 계획대로 끝내고 最終整理段階에 들어갔다. 2次試驗 科目의 逆順으로 최종정리하여 나갔다.

드디어 決戰의 날이 다가왔다. 이날을 위하여 얼마나 刻苦의 세월을 보냈

던가. 평소의 수면시간인 8시간을 반으로 줄여 4시간씩 자고 버티려고 하였으나 괜히 머리만 멍해지고, 평소 精讀을 하던 나로서는 몇시간 덜자고 읽어 보았자 얼마 더 할 수 없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잠이나 충분히 자서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평소처럼 푹 잤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가장 걱정이 國史는 第1問인 朝鮮王朝의 예상문제로 꼽았던 것이었으나 빠뜨리고 보지 않았던 것이라 옳게 쓰지 못하고 行政法은 第2問의 문제해석을 잘못하여 평소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공부한 범위내에서 出題되어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다. 마지막 날 刑訴法時間에는 氣力이 극도로 쇠진하여 눈앞이 가물거리고 손목에 힘이 빠져 글씨쓰기가 힘들었다. 종료시간을 5분남기고 나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나로서 할 수 있는 最善을 다했다. 어느 정도 合格을 자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떨어져도 餘恨은 없었다. 이처럼 진지하게 試驗에 임해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發表日이 가까워 옴에 따라 점점 없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發表日까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기는 등 모처럼 안온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5月 25日 發表前日에는 마음이 초조하여 오후까지 수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서 5시 30분경 유신고속터미널에서 電話를 걸어 合格을 확인했다. 지겹던 考試生活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뻐다. 3次試驗때 나의 實力에 과분하게 次席으로 合格한 것을 알았다(66·41).

四. 마지막으로

司法試驗은 누구나(어느정도의 두뇌는 있어야 함) 꼭 합격할 수 있다는 自信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合格할 수 있습니다. 굳은 自信이 없다면 沙上樓閣과 같아서 아무리 공부해 보았자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考試에 뜻을 둔 이상 이에 대해서 懷疑하지 마십시오. 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는 곤란합니다.

건강에 특히 留意하십시오. 考試공부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최후의 勝者는 막강한 體力의 所有者입니다. 考試合格만을 目標로 삼아 몸을 혹사한다면 마라톤에서 초반레이스에 너무 달리다가 결국 完走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第21回司試는 120명을 선발한다고 하니 同道諸位의 조속한 合格을 바라며 親友和가 이번 시험에 必히 合格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